

‘도박공화국’이란 소음을 뿔뿔해서 넣고 돌아서는데 세상이란 마당에 뽀얀 먼지들이 자욱하다. 애써 뿔뿔한 마음을 더럽힐까 싶어 우선이 뽀얀 ‘먼지들’부터 가라앉히려 마당에 찬물 뿌려놓고 기다려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온 마당 안이 대학교수가 제 아내의 알몸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진짜 아내임을 증명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올려놓았다는 ‘먼지’와 30대 주부가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자신의 알몸 사진을 올려 우수 값도 벌고 유치원도 보내고 했다는 ‘먼지들’로 뿌연다.

기막혀 질식할 것만 같다. 아무리 돈이 우선인 물질만능, 황금주의 세상이라지만 이것은 정상인으로 볼 수 없는 정신 이상자의 행동이 아닐까. 물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살기위해 필요한 재물과 종족번식을 위한 성적육구 등을 해결하려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수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사람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하나 돈이 없다면 불편할 뿐이다. 택시 탈 것을 버스타면 되는 것이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파렴치한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은 정신의 공황 상태.



불자 세상보기

안 명 옥
시인

어른 없는 인터넷 세상

도덕의 불감증이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지만 경계를 가릴 줄은 알아야 하는 법이다. 음란한 사진에 열광하고 클릭하고 댓글을 달아주던 국민들 역시 관중중에 걸린 병자들이다. 정신건강의 수위가 위험하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먼지처럼 떠도는 음란물에 대해 알아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증폭돼 가고 있다.

인터넷은 인간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편한 세상을 제공한 순기능의 이면에는 부모덕과 음란성과 각종 범죄와 자살 등 역기능을 함께 갖

고 있다.

공기업에서 여배우들의 알몸 화보들을 모바일에 띄워 정보이용료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어도, 그로 인해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어도 단속의 잣대는 허술하기만 하다.

형식적인 성인 인증시스템과 부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음란 성인사이트를 두고 표현의 자유나 개인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 어른 없는 나라에서 막 자란 ‘어둠의 자식들’ 같다. 자동차 한 대를 내건 댄스 경연대회에서 여성들이 속옷까지 마구 벗어 던지며 춤을 추더라는 소식을 들었다. 더 색시하고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어야 많은 박수를 받으려 우송할 수 있다고 자신의 존엄성이나 정체성마저 과감하게 내버리는 세태다.

지금 우리 세상은 어른도 내몰고 아버지도 없다. 밥상머리 교육도 사라지고 오로지 입시지옥 속에 인성교육은 먼 예기다. 학원만 다니는 아이들에게 욕망을 다스리는 수행 또한 없다.

빈부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상대적 빈곤 속에서 위화감마저 느껴거나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서민들에게 절망뿐이다.

우리가 혹은 ‘무정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어른이 어른으로 바로 서고 교육이 제 길을 가고 종교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에 충실하고 근본을 잊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살지 않겠다는 대답이 70퍼센트가 나왔다는 어느 설문조사를 허투루 넘기지 말고 다시 돌아봐야 한다.

너무 때가 늦은 것 같지도 않다. 도덕불감증에 면역주사라도 놓아야 동방예의지국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가능할까?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능가경(楞伽經)>에서 “일체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마음이다”라고 한 뜻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청허선사는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은 교(敎)요,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은 선(禪)이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수행의 방법은 역대 조사스님들이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교가 전승되는 시대와 지역의 인연을 달리 하면서 수행방법은 선, 염불, 간경, 주력 등 여러 가지로 실천되고 있지만 모두가 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근본으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법신불’ 만나는 기쁨

이번 9월 16일부터 10주에 걸쳐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에서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란 주제로 종단에서 저명한 10대 강백을 설주로 모시고 출가·재가 불자들을 경전의 세계로 안내한다. 경전의 핵심을 통찰하여 신심을 일으키고 발심 수행하는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대법심 법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찬탄할 대작불사이다.

요즘처럼 사회와 경제가 불안하고 갖가지 수행법이 난무하여 마음의 안정처를 갈구하는 이때 대강백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위시하여 열 분의 강백을 모시고 경전 하나하나가 제시하는 수행의 길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수승한 기회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대하는 경전이지만 어떻게 지니고, 읽고 이해하며 수행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불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불교의 최종 목적인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 수행은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으로 되는 길이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뇌를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가는 수행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수행이든 경전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사이비다. 경전은 삼보 중의 하나이다. ‘법신불’을 가장 가까이서 명확하게 모시게 될 이번 ‘강설대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법신(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콜라텍**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탐내는 것이 셋이 있다. 비록 한때는 젊다 하더라도 반드시 늙음이 오리니 젊음은 애착할 것이 못된다. 비록건강하다 해도 언젠가 병들날이 있으니 건강 역시 뽀낼 것 없다. 비록 현재는 목숨이 붙어있어도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니 매달리고 집착할 것이 못되는 나라. <중일아침경>

술을 팔지 않는 무도회장 일명 ‘콜라텍’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흔하게 사용되더니 얼마 전 휴일 오후 서울의 한 콜라텍에서 노인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손님들이 붙어 난 것으로 오해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는 바람에 70대 할머니가 압사하고 다른 노인 8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콜라텍에는 500명가량이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콜라텍이 ‘할 일 없고 돈 없는’ 노인들이 차지한 지 이미 오래됐다. 일반인들은 다소 생소하겠지만 언제부턴가 흥미를 잃은 청소년들을 대신해 노인들의 여가 공간으로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양이다. 입장료 몇 천 원만 내면 몇 시간을 때울 수 있어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복지사회로 만들겠다고 했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당장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크나큰 숙제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으로 부터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이 아직도 콜라텍 입구를 서성이는 한 선진국형 복지는 요원한 예기다. 젊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까운 미래 예비노인의 위위로 들어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불교계가 노인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자기성찰의 종교인 불교가 제일 먼저 이들을 포용하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 조용수(수재부 기자)

열린마당 **한글의식 생활화**

조계종 포교원이 2005년 4월 <한글통일법요집 I 천도·다비의식집>에 올 8월 <한글통일법요집 II 상용의식집> 발간을 마무리했다. 상용의식집에는 도량성, 중송, 상단예불, 각단에불이, 상용의식으로 삼보통칭, 미타칭, 지장칭 등 각종 행사 발원문도 소개돼 사찰과 가정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때 우리말로 법회의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말 의식집 완간에 따른 불교계의 기대를 들어본다.

각종 공식행사부터 실천을 **종단차원 지원과 점검이 필수** **청소년포교현장에 큰 도움**

우리나라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의식을 집전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2003년 제2기 신도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일법요집 한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계사 등 주요 사찰이 공동작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첫 번째 번역의 문제다. 2005년 발간된 <한글통일법요집 I 천도·다비의식집>의 경우 짜깁기 번역의 문제가 발생했다.

의식은 운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전문가나 포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한 사람이 일관된 흐름으로 집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보급의 문제다. <한글통일법요집>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천수경 하나만이라도 직접 해 본 다음 차차 확대해 나가면 된다. 또 종단 각종 공식 행사부터 <한글통일법요집>을 기본 교재로 해야 한다.

<한글통일법요집>으로 집전한 의식을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 전국 사찰 및 불교단체에 보급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중 스님(서울 불광사 회주)

<한글통일법요집>이 완간됨에 따라 불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모두 불교의식의 의미를 알고 함께 참여하게 돼 중요한 상징의식, 재의식은 물론 상용의식에서 불교와 알기 쉽게 만나게 돼 포교의 저변을 확대하게 됐다.

불교의식은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과 선의 알맹이를 담고 있다. 알기 쉽게 한글화했기 때문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와 선의 핵심을 잘 전달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의식의 한글화·통일화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글통일법요집>이 널리 보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포교 일선에서 <한글통일법요집>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포교 일선에 있는 스님이나 지도법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글통일법요집>은 종단 차원에서 발간한 일종의 ‘지침서’다. 따라서 분발사주지연수를 비롯해 각종 종단 행사에서 <한글통일법요집> 활용을 강조할 것이다.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요구도 많았기 때문에 정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종단 차원에서 지원 및 점검 시스템 수립도 시급한 과제다. 재현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청소년 포교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글통일법요집>이 완간돼 매우 뜻 깊다. 학교에서 법회를 진행할 때 한글로 된 통일법요집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제껏 사찰 또는 불교단체에서 나온 한글법요집은 있었지만 종단 차원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라 더욱 반갑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을 집전할 때 한문으로 된 의식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소년들이 뜻도 모르고 집전하는 사람의 목탁소리와 염불소리만 듣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식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의식은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한글통일법요집> 완간으로 더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을 법화로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완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홍보 및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지도자들이 <한글통일법요집>을 기본으로 한 의식 집전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커다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한글통일법요집> 완간은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시작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박영동(동국대 부속 여자고등학교 교법사)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분양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 여래선원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처를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병원, 경부고속철도, 고속버스 5분거리,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개별 단독(난방) 축열식 심야온돌·온수 등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수행처를 제공합니다.

제3차 여래선원 보현동 분양내역

(1차 금선선원 30세대, 2차 여래선원 문수동 24세대 완전분양 완료되었음)

성황리 분양중

- 28평형 - 2세대
- 22.2평형 - 6세대
- 18평형 - 6세대
- 14평형 - 8세대

총 22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8월 30일까지 완납시에는 3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함)

※ 먼저 분양금 내신 스님 방부터 모델하우스를 꾸밀 계획이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께서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